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2011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孫 潔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aching of The Ending Connectives
in Korean Education

-Focusing on Different Textbooks from China-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孫 潔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aching of The Ending Connectives
in Korean Education

-Focusing on Different Textbooks from China-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孫 潔

孫 潔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범위와 방법	3
1.2.1. 연구 범위	3
1.2.2. 연구 방법	8
1.3. 선행 연구 검토	9
제2장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특성	14
2.1. 교재의 구조 및 문법 설명 방식	14
2.1.1. 교재의 구조	16
2.1.2. 교재의 문법 설명 방식	18
2.2. 연결어미 설명 체계	20
2.2.1. 전체 연결어미	20
2.2.2.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	24
제3장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 분석	40
3.1. 설명 방식의 문제	41
3.2. 배열 순서의 문제	44
3.3. 예문 제시의 문제	45
3.4. 연습 영역의 문제	45
제4장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구성	47
4.1. 개선 방안	47
4.1.1. 설명 방식 개선	47
4.1.2. 배열 순서 개선	51
4.1.3. 예문 제시 개선	52
4.1.4. 연습 영역 개선	53

4.2. 연결어미 ‘-(으)니까’의 교육 방안	54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8



【 표 목 차 】

<표 1> 한국어 연결어미와 중국어 연사의 대조분석	4
<표 2>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국립국어원)	7
<표 3> 중국어 연사의 유형 분류	10
<표 4>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선정	15
<표 5> 교재의 외적인 구성 분석 항목	15
<표 6> 교재의 내적인 구성 분석 항목	16
<표 7> 교재의 외적 분석 결과	16
<표 8> 교재의 내적 분석 결과	17
<표 9> 『韓國語』의 연결어미	20
<표 10> 『標準韓國語』의 연결어미	21
<표 11> 『新速成韓國語』의 연결어미	23
<표 12> 교재별 ‘-아서/-어서’의 제시 단원과 형태	24
<표 13> 교재별 ‘-아서/-어서’의 문법 설명과 예문	25
<표 14> 교재별 ‘-(으)니까’의 제시 단원과 형태	27
<표 15> 교재별 ‘-(으)니까’의 문법 설명과 예문	27
<표 16> 교재별 ‘-(으)러’의 제시 단원과 형태	31
<표 17> 교재별 ‘-(으)러’의 문법 설명과 예문	31
<표 18> 교재별 ‘-(으)려고’의 제시 단원과 형태	33
<표 19> 교재별 ‘-(으)려고’의 문법 설명과 예문	34
<표 20> 교재별 ‘-는데/-(으)ㄴ데’의 제시 단원과 형태	36
<표 21> 교재별 ‘-는데/-(으)ㄴ데’의 문법 설명과 예문	37
<표 22> 교재 분석 항목	40
<표 23> 교재에서 사용한 문법 용어	41
<표 24> 『韓國語1』의 ‘-아서/어서’ 문법 설명과 예문	42
<표 25> 연결어미의 제시 순서	44
<표 26> 교재별 ‘-아서/어서’의 제시 순서	44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권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영어권 학습자는 아시아권에서만 사용하는 한자의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국어 문장의 어순 차이로 인해 문법적인 오류를 일으킨다. 일본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와 문장의 어순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글자의 자음 받침으로 인해 발음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 학습자로서 모국어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조 분석 가설은 ‘제1언어 체계가 제2언어 체계에 가하는 간섭을 제2언어 습득의 핵심적인 방해 요소(Douglas Brown, 2007:266)’라고 보아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 견해를 기반으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고립어에 속하는 모국어와 달리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모두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되며 불변하는 형태로 쓰이는 반면에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는 의존적인 요소로 어간 뒤에 첨가되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법적 특성에 따라 중국어는 어미가 발달하지 않은 반면에 한국어는 어미가 발달하여 문장의 서술어 성분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이거나, 한 문장 안에 안긴문장을 구성할 때도 쓰이고, 그 형태와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복잡한 체계를 이룬다(임지숙, 2009:1).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 어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많이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적위기(2005:1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를 분석한 결과, 어미 오류 중 연결어미에 대한 오류가 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은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¹⁾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워하는 문법적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한국어 교재에서 연결어미의 설명 방식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한국어 교재를 선정해야 한다. 교재는 언어 교수 현장에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3대 요소 중의 하나로(서종학·이미향, 2010:11),²⁾ 학습자의 교육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크게 중국 내에서 편찬된 교재와 한국 내에서 편찬된 교재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 내에서 편찬된 한국어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 내에서 편찬된 교재를 대상으로 연결어미를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대부터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를 그대로 수입하는 데서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시사, 비즈니스, 일상 회화, 여행, 한국어 번역, 한국어 문법’ 등 다양한 영역별로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그러나 장효단(2007:41)에서는 교재 편찬자들의 한국어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훌륭한 교재를 편

1) 적위기(2005)에서는 오류 유형으로 ‘어휘, 조사, 어미, 표현적, 성분, 기타, 부정법, 문장호응, 어순’을 제시하였고, ‘어휘<조사<어미’의 순서로 오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어미 오류가 17.1%로 나타났고, 이 중 연결어미의 오류가 6%를 차지하였다. 오류의 원인으로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 ‘모국어 간섭’,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서종학·이미향(2010:11)에서는 언어 교수 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로 교사(teacher)와 학습자(learner), 교재(materials)를 3대 요소로 제시한다.

찬하는 데는 장애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이 한국의 언어 습관을 고려하여 교재를 편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 내에서 편찬된 교재 중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인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 학습자로서 한국어 학습 시 이미 습득한 모국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는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교재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고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의 하나인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구조와 문법에 대한 설명 방식을 제시한 후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결어미의 한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 모형을 설계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둔다.

1.2.1. 연구 범위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중국어의 연사에 대응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 두 문법의 형식적·의미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중국어 연사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 후, 각 연결어미에 일 대 일로 대응하는 연사의 형태를 짚어보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결어미와 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문법 현상은 중국어로 쓰인 복문(復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윤진(2006:6-7)에서 복문은 의미상 관계가 있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문(절) 형식을 어떤 논리관계에 따라서 구성한 문장이라고 하였다. 복문을 이루고 있는 각 절은 서로 여러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관련어구를 써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관련어구는 복문의 각 절을 연결해 주는 연사³⁾와 접속부사, 단어 결합 형태를 가리키는데, 한국어 문장에서는 관련어구가 자주 생략되므로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서 정확한 의미를 추론해내야 한다.⁴⁾

관련어구의 유형 중에서 연사는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대응하는 문법 형태이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주로 변별적인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한 연결어미 형태가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학자의 견해에 따라 연결어미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결어미를 열한 가지의 의미 범주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 체계에 따라 연결어미와 연사의 각 형태와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연사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연결어미 체계는 국립국어원(2005)의 기존 범주를 원용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연결어미와 연사의 예문은 본고의 논의 흐름에 따라 추가 제시하였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예문	
나열		-고, -(으)며	1-1	그 친구는 예쁘고 착하다.
			1-2	她又漂亮, 又善良。= 她既漂亮, 又善良。
시간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2-1	남동생은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3)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은 '접속사, 연결사, 연사' 등 많은 표현을 쓰는데 본고는 '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관련어구는 연사(因爲/왜냐하면, 所以/그래서, 雖然/비록, 可是/그러나, 不但/~뿐만 아니라, 而且/게다가 등), 접속부사(也/또한, 才/겨우, 就/바로 등)와 단어의 결합 형태(一方面/한편에, 另一方面/한편에 등)를 포함한다.

	순서	-고, -아서/-어서	2-2	弟弟一邊吃飯，一邊看電視。
			3-1	오늘 친구를 잠깐 만나고 집에 들어왔다.
	전환	-다가	3-2	今天見了朋友一會兒，然後回家了。
			4-1	친구가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다.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나 데, -아도/-어도	4-2	朋友出去了一下，又回來了。
			5-1	내가 그 영화를 봤지만 친구가 다시 보자고 했다.
			5-2	我看過了那部電影，(可是)朋友要和我一起再看一次。
이유/원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6-1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합니다.
			6-2	因為今天太晚了，所以明天再做吧。 (今天太晚了，明天再做吧。)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7-1	오늘에 가면 내일쯤에 돌아올 수 있다.
			7-2	今天去，差不多明天能回來。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8-1	①밥을 먹으러 가자.
			8-2	②되도록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①去吃飯吧。5) ②盡量可能到明天為止寄給我吧。6)
인정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9-1	내가 제 시간에 못 올지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해.
			9-2	哪怕我不能按時來，你也要等我啊。
선택		-거나, -든지	10-1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도착하는 시간이 비슷할 거야.
			10-2	不是坐公共汽車，就是坐地鐵，來的時間都差不多。
방법/수단		-아서/-어서, -고	11-1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11-2	坐着火車去釜山了。
배경		-는데/-(으)나 데, -(으)니	12-1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12-2	我昨天給你打電話了，你為什麼沒接啊？

<표 1> 한국어 연결어미와 중국어 연사의 대조분석

이상의 대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결어미와 중국어 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두 절을 연결할 때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와 연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구성한다. 둘째,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중국어의 연사는 대부분 의미

5) 목적 연결어미 ‘-(으)러’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연사는 없다.

6) ‘盡量可能’와 ‘盡量’라는 표현은 ‘되도록’이라는 뜻이다.

적으로 대응한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어는 두 문장 사이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어는 두 문장 사이에 쉼표를 사용한다(2-1, 2-2). 둘째, 한국어의 복문은 연결어미를 생략할 수 없지만 중국어의 구어에서는 연사가 자주 생략된다(7-1, 7-2). 셋째, 한국어 복문에서 연결어미는 앞 절의 어간 뒤에 붙이지만 중국어의 연사는 앞절이나 뒷절의 주어 앞이나 뒤에 사용한다. 또한 연사는 두 가지의 표현이 숙어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9-1, 9-2). 넷째, 한국어는 연결어미를 생략할 수 없지만 중국어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연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어는 점층관계⁷⁾나 선택관계(10-1, 10-2)에서는 연사를 반드시 사용하지만 병렬관계(1-1, 1-2)나 인과관계(6-1, 6-2)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중국어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연사의 생략이 가능하다(5-1, 5-2).

이상의 결과를 검토하면 한국어의 연결어미 중에서 ‘이유/원인’ 연결어미와 ‘목적’ 연결어미, ‘배경’ 연결어미의 쓰임새가 중국어의 연사와 가장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저 ‘이유/원인’ 연결어미에 대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어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因爲~所以~, 由于~, 既然~就~, 因此~’를 사용한다. 이 연사들은 매우 간단한 의미와 용법을 지니고 있다. 의미적으로는 ‘~때문에 ~이다.’에 해당하고, 형태적으로는 어형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에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는 각각 의미적·형태적인 용법에 차이가 있고 문법적인 제약 현상을 보인다. 둘째, 중국어 ‘이유/원인’을 나타낸 문장에서 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유/원인’ 연결어미를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 전달이 어렵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와 같은 접속부사만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7) 점층관계는 ‘~뿐만 아니라’에 해당하며,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문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목적’ 연결어미에 대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어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은 ‘爲(了)~, ~爲的是~’를 사용한다. 이 연사들은 간단한 용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로 ‘~를 위하여’라는 의미에 해당하고, 앞절과 뒷절의 앞부분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으)러, -(으)려고, -도록, -게’에 해당하는데, 이는 중국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법적인 제약을 지닌다. 둘째, ‘爲(了)~, ~爲的是~’는 한국어의 ‘목적’ 연결어미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으)러, -(으)려고, -도록, -게’는 중국어로 표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하러 가자’는 중국어로 ‘去~吧。(가~자.)’에 해당하는데, 중국어는 ‘~(하)러’라는 연결어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문법적 요소가 없다.

마지막으로 ‘배경’ 연결어미에 대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배경’ 연결어미는 한국어에서 ‘-는데/-(으)는데, -(으)니’에 해당하고,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배경’ 연결어미에 대한 배경 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는데/-(으)는데’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립/대조’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음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절을 연결하고 문장을 만들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원인’ 연결어미, ‘목적’ 연결어미와 ‘배경’ 연결어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세 가지 연결어미는 각각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유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배경	-는데/-(으)는데, -(으)니

<표 2>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국립국어원)

세 가지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한국어교재의 초급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들을 선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학습자는 초급에 해당하는 연결어미의 의미와 제약 사항을 명확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의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초급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형태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교재를 분석하고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백봉자(2003)에 따르면 ‘이유/원인’ 연결어미 중 ‘-아서/-어서, -(으)니까’, ‘목적’ 연결어미 중 ‘-(으)러, -(으)려고’, ‘배경’ 연결어미 중 ‘-는데/-(으)ㄴ데’의 형태가 초급 문법에 속한다.

1.2.2. 연구 방법

본고는 한국어의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와 중국어 연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조 분석 가설의 관점을 취한다. 두 언어의 문법적 차이는 학습자가 제 2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방안은 두 언어의 문법적 요소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특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제시 방식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재의 선정 기준은 ①중국 내 기관에서 편찬한 교재이다. ②종합교재이다. ③북경 지역에서 많이 판매되어 사용된 교재이다.⁸⁾ 이 기준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고, 교재의 구조 및 문법의 설명 방식을 살펴본 후에 그 안에서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제시 방식을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 모형을 제시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둔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전체적으로 교재의 구조와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연결어미의 설명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결어미와 교재마다

8) 북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와 중국 내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결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법의 설명 방식과 모든 연결어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어 연사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제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교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를 분석한다. 교재 분석의 항목은 연결어미의 ‘제시 단원’, ‘제시 형태’, ‘문법 설명’, ‘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대로 검토할 것이다.

‘설명 방식’ 부분에서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배열 순서’ 부분에서는 각 교재에서 연결어미를 배열하는 순서가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예문 제시’ 부분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예문의 제시 방식을 살펴보고, 양적인 측면에서 예문의 수를 살펴본다. ‘연습 영역’ 부분에서는 연습 문제의 유형을 살펴본 후에 이 유형들이 학습자가 연결어미를 이해하고, 연습하고,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교재에서 제시한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장에서는 각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 방안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1.3. 선행 연구 검토

본고에서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연결어미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에

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교재의 현황과 특징, 제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일으키는 연결어미 오류와 빈도를 살펴보고, 교재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중국어의 연사를 다룬 연구는 대표적으로 劉英林(1996), 이정원(1998), 정춘란(2009), 주소사(2010)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중국어 연사의 특징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중국어의 연사를 서로 대조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劉英林(1996)에서 분류한 중국어 연사의 유형을 <표 3>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병렬관계	又~又~, 也~也~, 一邊~一邊~, 一方面~一方面~, 既~又~, 不是~而是~
점층관계	不但(不僅)~而且(還, 也)~, 不僅~也(還)~, 更~
선택관계	(還是)~還是~, 或者~或者~, 不是~就是~
연관관계	(先)~然後~, (先)~再~, (先)~接着~, 以後~, 後來~, 然後~, 于是~
전환관계	盡管~但是(可是)~, 雖然~但是(可是)~, 但是~, 可是~, 反而~, 不過~
조건관계	只有~才~, 只要~就~, 無論(不論)~都(也)~, 不管~都(也)~
인관관계	因爲~所以~, 由于~, 既然~就~, 因此~
목적관계	爲(了)~, ~爲的是~
양보관계	哪怕~也~, 就是~也~
긴축문	一~就~, 越~越~, 不~不~

<표 3> 중국어 연사의 유형 분류

이정원(1998)에서 ‘연사는 연결사라고도 하며, 품사 분류상으로는 허사로 분류되고, 문장에서 어법 기능상으로는 어구 사이에서 연결 작용을 일으키는 부사와 연사 단어에 대한 총칭으로 관련사어라고도 하며, 관련사어의 주요 작용은 분구와 분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를 내

렸다. 특성으로는 ‘문장 기능상 주어, 빈어, 위어로 쓰일 수 없으며 의미상으로는 어법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자체에는 구체적 의미가 없다.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된다’고 제시하였다.

정춘란(2009)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문에 관하여 대조 연구를 하였다. 논문에서는 중국어 문법에서 연사라는 용어를 대신 접속사라고 제시하였고, 한국어의 ‘이유/원인’ 연결어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두 문법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주소사(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에 관해 연구하였다. 한국어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와 오류 현상을 기반으로 9가지 연결어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분석한 뒤에 중국어의 연사와 대조 분석을 하였으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내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는 신은희(2008), 김정우(2008), 유천(2009), 단결(2010), 진정(2010), 유양(2010)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신은희(2008)와 김정우(2009)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은희(2008)에서는 교재의 단원 구성 요소, 주제, 도입에 대한 교재의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한 반면에 김정우(2008)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재의 외적인 내용(출판년도, 페이지 수 등)과 내적인 내용(어휘, 문법 등)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교재의 문제점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유천(2009)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문제를 분석하였으나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단결(2010)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재의 미래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정(2010)에서는 중국 대학교와 성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유양(2010)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재의 내적인 구성(어휘, 문법, 문화 학습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는 대표적으로 박대범(2007), 최지희(2010), 한예진(2010), 위나(2010)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유/원인’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박대범, 2007), ‘목적’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최지희, 2010; 한예진,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위나, 2010)로 구분할 수 있다.

박대범(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이유/원인’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연결표현으로 ‘-기에, -길래,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유/원인’ 연결어미와 연결표현을 학습 수준과 설명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문법 설명은 일관성이 없거나 부족한 점이 있고 용어가 어려워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의어 학습’을 제시하였다. 유의어의 의미 변별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도와 정확한 언어 사용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최지희(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목적’ 연결어미로 ‘-러, -려고, -고자, -게, -도록’을 선정하여 의미기능,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다섯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①제시 및 설명 방식, ②어미 제시 순서, ③용어의 적절성, ④내용 기술의 적절성, ⑤실제적인 연습 및 활용의 유무의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표적으로 ‘-려고’의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예진(2010)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목적’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단계별 제시 양상과 문법 설명의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나(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루었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 50명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시간 관련 연결

어미의 사용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아서/어서/여서’, ‘-(으)면서’, ‘-자마자’, ‘-자’를 사용하였다. 오류빈도가 높은 연결어미는 ‘-아서/어서/여서’, ‘-고’, ‘-(으)면서’, ‘-자마자’, ‘-자’의 순서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초급 학습자들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결어미를 작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제2장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특성

2.1. 교재의 구조 및 문법 설명 방식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등의 교수변인과 학습자, 학습 장소, 학습 목표 등의 학습변인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가운데 교재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며 교수 방법이나 평가방법 등이 담겨 있고, 교사와 학습자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조항록(2003:249)에 따르면 교재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그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라고 하였다. 민현식(2000:5)은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고 교재의 정의를 내렸다. 서종학·이미향(2010:14)에서는 교재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곧 교육 과정을 문서 등의 매체로 작성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교육적 도구**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교재는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총체적인 교육적 도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한 후 항목을 설정하여 교재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고, 그 중 문법 설명에 초점을 두어 교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 내 한국어 교재는 <표 4>와 같이 중국 북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교재를 선정하였다.

번호	교재 명칭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韓國語』	李先漢, 安炳浩, 朴忠祿, 王丹, 林成姬 (韓) 金正祐	民族出版社	2005
2	『標準韓國語』	北京大學等25所大學 教材編寫組 共同編寫	北京大學出版社	2007
3	『新速成韓國語』	金明姬 文麗華 編著	民族出版社	2006

<표 4>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선정

단결(2010:28)에 따르면 중국 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에서 출판한 『韓國語』이다. 『標準韓國語』는 중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고, 각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다.⁹⁾ 이 교재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된 대학교와 어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며, 학습자들이 자습을 위해 많이 사용한다.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제목 그대로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유학 목적으로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학습자나 초급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교재이다.¹⁰⁾

교재 분석의 항목은 크게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5>, <표 6>과 같이 설정하였다. 교재의 외적 분석 항목으로는 ‘교재 권수, 출판연도, 페이지수, 관련 구입물’을 구분하였고, 교재의 내적 분석 항목으로는 ‘교재 구성, 교재의 목표와 교수법, 각 단원의 구성, 부록 수, 부록 구성’으로 구분하였다.¹¹⁾

교재 권수
출판연도
페이지수
관련 구입물

<표 5> 교재의 외적 분석 항목

9) 한국어 학습 사이트 韓國新网, 韓語韓國에서는 『標準韓國語』를 대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10) 한국어 학습 사이트 人人听力网에서는 『新速成韓國語』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11) 황인교(2003:292)에서는 교재 분석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교수 학습 상황: 현장, 학습자, 교사, ②교재 외적인 구성 모양 및 구입, 관련 구성물, 저자 또는 기관 정보, ③교재 내적인 구성: 구성(전체, 단위), 학습 내용(주제, 문법, 어휘, 담화, 문화), 학습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습 평가와 피드백

교재 구성
교재의 목표와 교수법 ¹²⁾
각 단원의 구성
부록 수
부록 구성

<표 6> 교재의 내적 분석 항목

2.1.1. 교재의 구조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특징적인 점들을 살펴보고, 교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각 교재의 외적 분석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교재의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교재의 권수가 한두 권씩 차이가 나며, 한국어의 일반 학습 과정은 보통 3~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韓國語』 1~4/『標準韓國語』 1~3), 『新速成韓國語』은 교육 신속하게 한국어를 학습하게 돕는 데 교육 목적이 있으므로 한 권의 교재만 편찬되었다. 워크북은 『新速成韓國語』 교재만 구비되어 있으며, 『韓國語』는 별도의 테이프가 함께 있고, 『標準韓國語』는 MP3 파일이 구비되어 학습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韓國語』	『標準韓國語』	『新速成韓國語』
교재 권수	1, 2, 3, 4.	1, 2, 3.	1
출판년도	2005	2007	2006
페이지 수	290쪽 내외	300쪽 내외	400쪽 내외
관련 구입물	테이프	테이프/워크북	MP3 파일

<표 7> 교재의 외적 분석 결과

다음으로 교재의 내적 분석 결과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韓國語』 교재는 ‘과학성, 규범성, 실시성 그리고 실용성’을 기반으로 중국의 한

12) 교수법은 대체로 ‘문법-번역법, 청각구두법, 침묵법, 자연법, 전신반응법, 암시법, 의사소통법’으로 분류한다(박갑수, 2005).

국어 전공 교사, 학습자 그리고 한국어를 자습하는 학습자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로 편찬되었다. 『標準韓國語』 교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용 표준 한국어 교과서로 편찬되었고, 실제성이 있는 표준 한국어를 중국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편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었다고 하였다.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쉽게 입문서로 사용하고, 학습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하여 자습하는 학습자와 한국어 학원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편찬되었다.

	『韓國語』	『標準韓國語』	『新速成韓國語』
총 단원 수	15~25단원	20단원~30단원	46단원
교재 구성	발간사-차례-단원-부록	발간사-차례-단원-색인-연습문제-답안지	차례-단원-부록
각 단원의 구성	본문-단어-발음-문법과 관용표현-연습	본문-단어(발음)-기본문법-연습문제-보충단어	본문-어휘-발음-풀이-문법-연습문제-보충단어
부록 수	3	2	4
부록 구성	본문번역-문법색인-어휘색인	색인-연습답안지	답안지-본문번역-문법 색인-어휘 색인

<표 8> 교재의 내적 분석 결과

『韓國語』 1~4 교재는 총 15~25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발간사-차례-단원-부록’의 순서대로 구성되었다. 『標準韓國語』 1~3 교재는 20~30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발간사-차례-단원-색인-연습문제-답안지’의 순서대로 구성되었다.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총 46단원으로 한 권의 교재이며, ‘차례-단원-부록’의 순서대로 구성되었다.

세 권의 교재의 각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韓國語』 1~4 교재는 ‘본문-단어-발음-문법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한 주제에 따라 대화문과 단편의 글로 구성되었고, 새로운 단어와 발음을 제시한 후에 문법에 관한 설명이 제시된다.

『標準韓國語』 교재의 단원은 ‘본문-단어(발음)-기본문법-연습문제-보충

단어'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대체적으로 대화문 2편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화문 2편과 짧은 글 1편으로 구성된 단원도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新速成韓國語』 교재의 단원은 '본문-어휘-발음-풀이-문법-연습문제-보충단어'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단원의 주제에 따라 글 또는 대화문의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새로운 어휘와 발음을 제시한 후에 '풀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추가되어 중국인 학습자가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중국어의 차이점(專攻전공의 한·중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차이, 문법의 생략 형태 등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해결하고 있다.

각 교재의 부록을 비교하면, 『韓國語』 1~4 교재는 '본문번역-문법색인-어휘색인'으로 구성되었으며, 『標準韓國語』 1~3 교재는 '색인-연습답안지'로 구성되어 있다.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답안지-본문번역-문법 색인-어휘 색인'으로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부록의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2.1.2. 교재의 문법 설명 방식

세 교재는 문법 설명을 텍스트 중심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법의 형태를 제시한 설명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중국어로 된 설명을 매우 자세하게 덧붙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문법 설명에 부합하는 짧은 문장의 예문을 함께 보여준다. 문법에 대한 용어는 주로 한국어 문법 용어를 한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은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 2외국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말하기와 듣기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문법 설명의 양이 방대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예문은 실용적인 문장보다 문법의 정확성과 형식을 강조한 문장을 제시하

고 있다.

예문은 최소 6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암기 위주 학습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문법의 규칙과 활용 방법을 단순히 설명만 하기보다 예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세 교재의 연습 부분에서는 ‘문장 완성하기, 빈칸 채우기, 대화 완성하기, 문장 만들기, 대화문 만들기,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기, 한국어-중국어(중국어-한국어) 번역하기,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활동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은 대략 ‘본문번역-문법색인-어휘(문법)색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부록을 구성하고 있고, 문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標準韓國語』의 부록은 문법 항목과 어휘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가나다’ 순서로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색인-연습답안지’의 순서로 간단히 내용을 구성하였다.

『新速成韓國語』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김치가게에서’라는 주제를 다룬 경우에 한국요리에 관련된 어휘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에 관련된 지식을 학생에게 추가 정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내 한국어 교재는 편찬 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기반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문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의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문법 설명과 더불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는 더 이상 한국어에 대한 언어 자체만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소개하는 중간 매체가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한 후 이를 교재 구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2. 연결어미 설명 체계

본 논문은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 연결어미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고, 그 중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설명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2.1. 전체 연결어미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韓國語』 1~4 교재, 『標準韓國語』 1~3 교재, 『新速成韓國語』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연결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연결어미의 선정과 배열 순서, 설명 방식 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기 때문에 각 교재의 단원마다 제시되어 있는 연결어미를 표 안에 제시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연결어미의 문법적인 설명 방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겠다.

『韓國語』 1~4 교재는 <표 9>와 같이 연결어미를 배열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20개의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34개의 연결어미를 모두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韓國語1』	『韓國語2』	『韓國語3』	『韓國語4』
제1과		①-아서/-어서/-여서(형태) ②-아야/-어야/-여야 ③-거나		
제2과		①-며/-으며 ②-면서/-으면서	-자	
제3과				-지라도/-을지라도
제4과				
제5과				
제6과		-더라도		
제7과				

제8과		-느라(고)		
제9과		-면/-으면		
제10과				
제11과				
제12과				
제13과				
제14과				
제15과	-면/-으면	-자마자		
제16과	①-아서/-어서/-여 서(이유) ②-고			
제17과	-려고/-으려고			
제18과				
제19과	①-아서/-어서/-여 서(순차) ② -다가			
제20과	① -리/-으리 ② -면서/-으면서 ③-ㄴ 데/-은데/-는 데(대조)			

<표 9> 『韓國語』의 연결어미

연결어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연결어미를 ‘연결어미(連結詞尾)’로 제시할 때가 있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 연결어미는 모두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문법 용어는 한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시제’, ‘동사어간’, ‘명령구’ 등과 같은 한국어 문법에 쓰이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미적인 측면만 설명하고 있으며, 형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학습자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문법을 설명하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標準韓國語』 1~3 교재는 총 26개의 연결어미를 제시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34개의 연결어미보다 적게 다루고 있다.

	『標準韓國語1』	『標準韓國語2』	『標準韓國語3』
--	----------	----------	----------

제1과			
제2과		①-니까 ②-거나	
제3과			-면서
제4과		①-면서 ②-아/어야(만)	
제5과		-는데 (대조)	
제6과			
제7과		-는데 (배경)	
제8과		①-다(가) ②-지만	-면
제9과			
제10과		-자마자	
제11과			
제12과			-며
제13과			-도록
제14과			
제15과		-아/어도	
제16과		①-(으)려고 ②-든지	-자
제17과			
제18과			
제19과			
제20과	-(으)러 가다	-느라고	
제21과	-고		-자
제22과			
제23과	-아/어서 (원인)		
제24과			
제25과			
제26과			
제27과	-(으)면		
제28과	-다가		
제29과	①-아/어서(순차) ②-(으)려고 하다		
제30과	-(으)려면		

<표 10> 『標準韓國語』의 연결어미

연결어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연결어미를 ‘연접사미(連接詞尾)’로 제시하고 있다. 연결어미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중국어로 되어 있으며, 문법 용어는 ‘어간, 체언’과 같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韓國語』 1~4 교재에 비해 중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문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한다. 연결어미의 의미적인 기능은 설명하고 있으나 형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없다.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제23과부터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 18개의 연결어미를 다루고 있다. 이 교재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에 적은 수의 연결어미를 다룬다.

제23과	-(으)러	제35과	
제24과	-고 (나열) -(으)ㄴ 데/-는데 -(으)면	제36과	
제25과	-(으)면서 -아(어/여)서(순차)	제37과	
제26과	-도록 -지만	제38과	-고 (방식)
제27과	-게	제39과	-든지
제28과		제40과	
제29과	-아(어/여)야	제41과	
제30과		제42과	-(으)며
제31과	-(으)려고 / -(으)려고 하다	제43과	-(으)니/-(으)니까
제32과		제44과	
제33과	-(으)려면	제45과	-다(가)
제34과		제46과	-느라고

<표 11> 『新速成韓國語』의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모두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한국어의 문법 용어인 ‘체언’, ‘보조동사’, ‘격조사’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연결어미를 설명할 때 중국어에 대응하는 연사를 제시하여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형태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말하거나 쓰기 활동을 할 때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

이 교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형태가 다른 연결어미를 제시할 때 이전에 다루었던 연결어미와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연결어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후에 학습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준다. 또한 예문을 함께 제시하여 명확하게 두 연결어미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2.2.2.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

세 교재의 전체적인 문법 체계 중에서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교재별로 연결어미가 제시된 단원과 제시된 문법의 형태를 비교하고, 문법 설명과 예문을 비교하여 각 교재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유/원인’ 연결어미 중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아서/-어서’를 <표 12>와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2>는 각 교재에서 ‘-아서/-어서’ 연결어미가 제시된 단원과 형태를 제시한 자료이다. 모두 제1권에서, 즉 초급 교재에서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제시하는 형태도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법의 설명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와 『標準韓國語』는 1권에서 다루고 있으며, 『新速成韓國語』는 연결어미를 23단원부터 제시하였는데, 24단원에 ‘-아서/-어서’를 제시하여 초반부에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語1』	『標準韓國語1』	『新速成韓國語』
제시 단원	제17과 물건사기	제23과 약국	제24과 날씨
제시 형태	‘-아서/-어서/ -어서’ (-아/-어/-여)	‘-아/어서’	‘-아(어/여)’ [‘-아(어/여)서’]

<표 12> 교재별 ‘-아서/-어서’의 제시 단원과 형태

<표 13>에는 ‘-아서/-어서’의 교재별 문법 설명과 예문을 제시하였다. 세 교재는 ‘-아서/-어서’의 문법 설명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문법을 설명할 때 한국어 문법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문법 설명은 매우 길고 복잡한 반면에 ‘-아서/-어서’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설명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문 부분은 『韓國語』와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많은 양의 예문을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아서/-어서’의 여러 기능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 기능에 따라 예문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	예문
「韓國語1」	用于用言語干或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先于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原因，方式或時間的先后關係。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ㅏ, ㅑ’時用‘-아서’；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ㅓ, ㅕ’以外的其他元音時用‘-어서’；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여서’；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后用‘-어서’。除在叙述格助詞后邊使用的情况以外，‘-아서/-어서/-여서’可縮略爲‘-아/-어/-여’，但其意義相同。	①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原因) 因爲這個太貴了，沒法兒買。 ②이 약은 세 번에 나누어 먹어야합니다. (方式) 這藥應該分三次吃。 ③일이 많아 못 갔습니다. (原因) 事情很多，所以沒能去。 ④상하이에 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先后) 去上海見了朋友。 ⑤오늘은 일요일어서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原因) 因爲今天是星期天，所以百貨商店里人很多。
「標準韓國語1」	連接詞尾‘-아/어서’用于動詞形容詞的詞干后，表示原因，理由。‘-아/어서’不与表示時制的詞尾連用也不能用于命令句和共同句中。在‘名詞+이다’后常用‘-라서’相当于漢語的‘由于...’，‘因爲...’。	①ㄱ: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怎麼這麼晚才到? ㄴ: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堵車，所以晚了，對不起。 ②ㄱ: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합시다. 今天晚上一起吃飯吧。 ㄴ:미안합니다.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對不起，今天有約會，不行。 ③ㄱ:지난 일요일에 뭘 했습니까? 上個星期天干什么了? ㄴ:피곤해서 하루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 由於很累，在家里歇了一天。 ④ㄱ:어제 모임에 왜 안 왔습니까? 爲什麼沒參加昨天的聚會? ㄴ: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못

		갔습니다. 臨時來了客人，沒去成。 ⑤ㄱ: 여행이 재미있었습니까? 旅行有趣嗎? ㄴ: 추워서 고생했습니다. 天太冷受了不少罪。 ⑥ㄱ: 어제 오후에 뭐 하셨습니까? 昨天下午干什么了? ㄴ: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今天是母親的生日，買禮物去了。
「新速成韓國語」	在兩個分句中，‘-아(어/여)’接在前後的謂詞詞干後表示前句是後句的狀況，即表明後面的動作和狀態或謂語的體詞是在什麼狀況下發生和形成的。由於上下文所使用的詞性不同，其意思也不同，即有時表示情態，有時表示原因，理由，方式，方法，手段，根據，目的等。‘-아(어/여)’表示動作已結束，因此，‘-아(어/여)’前不使用時制詞尾‘-았(었/였)-’; ‘-겠-’。‘-아(어/여)서’比‘-아(어/여)’更強調其意思。做謂語的體詞後接‘-이’，再接‘-어서’也表示原因。‘-아(어/여)’(‘-아(어/여)서’)表示原因時只用於陳述句和疑問句。	①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하네요. 因為刮風，所以天氣涼颼颼的。 -原因 ②비가 내려서 해를 볼 수 없어요. 因為下雨，所以看不到太陽。 -原因 ③여기는 해양성 기후여서 겨울에도 기온이 10도 정도예요. 因為這裡是海洋性氣候，所以冬天的氣溫也是10度左右。 -原因 ④뛰어(뛰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跑着去學校了。 -情態 ⑤도서관에 가(가서) 공부합니다. 去圖書館學習。 -方法，方式 ⑥그 분은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他為殘疾人服務。 -目的

<표 13> 교재별 ‘-아서/-어서’의 문법 설명과 예문

다음으로 ‘이유/원인’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으)니까’의 제시 단원과 형태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세 교재에서 ‘-(으)니까’를 제시하는 시기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韓國語』 교재는 1권 초급 교재에 제시하였지만, 『標準韓國語』 교재는 2권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新速成韓國語』에서는 총 46단원 중 43단원에서 제시하였다.

	『韓國語1』	『標準韓國語2』	『新速成韓國語』
제시 단원	제21과 우체국에서	제2과 예약하기	제43과 일기
제시 형태	‘-니까/-으니까’	‘-(으)니까’	‘-(으)니’, ‘-(으)니까’

<표 14> 교재별 ‘-(으)니까’의 제시 단원과 형태

‘-(으)니까’의 문법 설명과 예문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세 교재는 모두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로 번역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학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韓國語』와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아서/-어서’와의 의미적·형태적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교재에서는 문법을 설명할 때 ‘-(으)니까’의 ‘원인’ 의미 ‘추측, 설명’ 등의 의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標準韓國語』 교재는 “용언과 ‘체언+이다’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뒤에 붙여 쓴다” 라고 매우 간략하게 ‘-(으)니까’를 설명한다.

예문 부분에서는 세 교재 모두 서술형이나 대화형으로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으)니까’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분류한 교재에서는 각 의미에 따라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新速成韓國語』에서는 ‘-(으)니까’와 ‘-아서/-어서’의 차이점을 문법 설명에서 제시한 뒤에 예문에서도 같은 문장으로 ‘-(으)니까’와 ‘-아서/-어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더욱 명확하게 문법 요소 간의 의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법 설명	예문
--	-------	----

「韓國語1」	‘-니까’用于‘-이다’的<u>語干</u>，沒有<u>韻尾</u>的<u>用言語干</u>以及以‘ㄷ’結尾的<u>用言語干</u>，<u>語尾</u>‘-시’-/-으시-’之后；‘-으니까’用于有<u>韻尾</u>（韻尾‘ㄷ’除外）的<u>用言語干</u>或<u>語尾</u>‘-았’-/-었’-/-였’-’之后，表示由于進行了前面的動作，進而發現了后面的情况。‘-니까’-/-으니까’還可以表示原因，相當于‘因為’。‘-니까’-/-으니까’表示原因時，與我們前面提到的‘-아서’-/-어서’-/-여서’有所不同，‘-아서’-/-어서’-/-여서’所表示的原因是一般情况，而‘-니까’-/-으니까’則更強調話者個人的感覺或想法，此時前后分句的主語可以相同也可以不同。另外，‘-니까’-/-으니까’與‘-니’-/-（으）니’的語法意義基本相同，只不過‘-니까’-/-으니까’更加具有強調意義，在口語中也更常用。	①그 사람은 친구가 많지요? 他有很多的朋友吧？ 편지를 자주 받는 걸 보니까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說明) 他經常收到信，看樣子可能朋友不少。 ②편지를 자주 받는군요. 經常收到信。 제가 답장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요. (原因) 因為我經常回信，所以常收到信。 ③그곳에 가니까 어떠했어요? (=어땠어요?) 去那地方看了，那兒怎麼樣？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說明) 去那兒一看，那里人很多。 ④꽃이 많이 피었어요? 很多花都開了吧？ 봄이 되니까 들에는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原因) 春天來了，田野里許多花對都開了。
「標準韓國語2」	連接詞尾‘-(으)니까’用于<u>謂詞</u>和‘<u>體詞</u>+이다’的<u>詞干</u>以及<u>時間詞尾</u>后表示理由或根據。	①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가십시오. 下雨了，打傘去吧。 ②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납시다. 今天太忙了，明天再見吧。 又如： ①ㄱ: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 주십시오. 天太熱，開一下窗戶吧。 ㄴ:알겠습니다.

		知道了。 ②ㄱ: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실 거니까 방안 청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今天晚上有客人來，請把房子打掃干淨。 ㄴ:누가 오실 건데요? 誰要來？ ③ㄱ: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갑시다. 沒有時間了，坐出租車去吧。 ㄴ:택시를 잡기가 힘들 건데요. 出租車很難叫到的。 ④ㄱ:김대리, 내일은 회의가 있으니까 지각하지 마십시오. 金代理，明天又會議，可別遲到。 ㄴ:알겠습니다. 일찍 나오겠습니다. 知道了，我早點來。 ⑤ㄱ:오늘 밤에 댁으로 전화 드릴게요. 今天晚上，我給您家打電話。 ㄴ:오늘은 늦게 들어갈 거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하세요. 今天晚上晚回去，請明天早上再打吧。 ⑥ㄱ:술 한잔 합시다. 咱們喝杯酒吧。 ㄴ:오늘은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일찍 들어가야 돼요. 今天家里來客人，我得早點回去。
『新速成韓國語』	‘-(으)니’和‘-(으)니까’的語法意義基本相同，只不過‘-	①드라마를 보 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으)니까'比'-(으)니'更加具有強調意義。它們都接在<u>謂詞詞干</u>，<u>體詞的謂詞形</u>，'-(으)시-'，'-(았(었/였)-'，'-(겠)-'后表示原因。這種原因不像連接詞尾'-(아(어/여))'，'-(고)'，<u>接續副詞</u>“그래서”那樣單純表示因果關係。'-(으)니'和'-(으)니까'表示前句敘述某種原因的基礎上，<u>后句根据前句的內容，發現新情況或陳述，命令，推測，勸告，感嘆，提示，打算等多种內容</u>。因此，其句形可以是疑問形，陳述形，命令形，<u>共動形</u>。'-(으)니까'比'-(아(어/여))서'更強調說話者個人主觀的感覺與想法，'-(아(어/여))서'更強調客觀的原因。而且'-(으)니까'前后分句的主語可以相同或不同。開音節，<u>體詞的謂詞形</u>后接'-(니)'，'-(니까)'，閉音節后接'-(으니)'，'-(으니까)'。	看了電視劇，心情怎麼樣？ －疑問 ②밖을 보니 비가 왔군요. 往外看，下雨了呀。－陳述 ③내가 친구 보고 ‘먼저 돈을 던져야 해?’라고 물으니 친구가 웃었다. 我問朋友說：“先扔錢嗎？”結果朋友笑了。－發現 ④앞에 물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前邊有水請注意。－命令 ⑤내가 돈을 버린다고 하니 웃을 수 밖에. 我說扔掉錢朋友只好笑了。－陳述 ⑥그 분은 이름난 의사이니까 의술이 높을 거예요. 他是出名的醫生，可能醫術很高。－推測 ※'-(으)니까'比'-(아(어/여))서'更強調原因。 ①머리가 아프니까 학교에 못 갔다. 因為頭疼，才沒去學校的。 ②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 因為頭疼，所以沒去學校。 ③돈이 없으니까 공부 못 했지. 沒有錢，才沒念成書嘛。 ④돈이 없어서 공부 못 했다. 因為沒有錢，所以沒念書。
--	---	--

<표 15> 교재별 '-(으)니까'의 문법 설명과 예문

다음으로 ‘목적’ 연결어미 ‘-(으)러’의 제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6>에서 제시 단원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세 교재 모두 1권 초급 교재에서 비슷한 단원에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으)러’의 형태로 연결어미로 제시하고 있는데, 『標準韓國語1』에서는 서술어 ‘가다’를 덧붙여 하나의 형태 ‘-(으)러 가다’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1』	『標準韓國語1』	『新速成韓國語』
제시 단원	제18과 병원에서	제20과 계절과 날씨	제23과 어디에 가세요?
제시 형태	‘-러/-으러’	‘-(으)러 가다’	‘-(으)러’

<표 16> 교재별 ‘-(으)러’의 제시 단원과 형태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교재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문법 설명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韓國語』 교재는 ‘-(으)려고’를 ‘-(으)러’보다 앞부분에 제시하여 ‘-(으)러’ 연결어미를 제시할 때 ‘-(으)려고’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예문 부분은 서술형이나 대화형식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新速成韓國語』 교재에서는 예문을 제시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해설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없는 한국의 문법적 요소를 중국어를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문법 설명	예문
『韓國語1』	連結語尾‘-러/-으러’用于動詞詞干后，表示來，去等具有移動性的動作所要達到的目的，它后面一般与‘가다(去)’, ‘오다(來)’, ‘다니다(往來)’, ‘나가다(出去)’, ‘들어오다(進來)’, ‘올라가다(上去)’等帶有地点轉移含義的詞連用。‘-러’用于元音或韻尾‘ㄹ’后，‘-으러’用于韻尾(韻尾‘ㄹ’除外)后。	①병원에는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來醫院看病的人很多。 ②휴식 시간에는 공원에 놀러 갑니다. 休息時去公園玩。 ③일이 있어서 놀러 갈 수 없습니다. 有事兒，所以不能去玩。 ④입원한 친구를 병문안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去医院探望住院的朋友。 ⑤그분은 선생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습니다. 那个人來這裡見老師。
	※‘-러/-으러’与‘-려/-으려’的區別 連結語尾‘-러/-으러’表示行動所要達到的目的，而‘-려/-으려’則表示一種意圖，相當於漢語的‘想要’、‘打算’，後面常與‘하다(做)’、‘생각하다(想)’、‘계획하다(計劃)’等動詞連用，在這一點上與‘-러/-으러’有較為明顯的區別。	①나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目的) 我去圖書館學習。 ②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합니다. (意圖) 我想在圖書館學習。 ③나는 여기에 놀러 왔습니다. (目的) 我來這兒玩。 ④나는 여기에서 놀러 합니다. (意圖) 我想在這兒玩。
「標準韓國語1」	接在動詞詞干後，表示動作的目的。常與‘가다, 오다, 다니다’等趨向動詞連用。 閉音節用‘-(으)러 가다’，開音節用‘-러 가다’。	①ㄱ: 어디에 가요? 去哪兒? ㄴ: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 去學校學習。 ②ㄱ: 한국에 왜 왔습니까? 為什麼來韓國? ㄴ: 한국말 배우러 왔어요. 來學韓語。 ③ㄱ: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갑시다. 今天晚上去看電影吧。 ㄴ: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요. 對不起，我有約會。 ④ㄱ: 어디에 가요? 去哪兒? ㄴ: 머리를 자르러 가요. 去理髮。 ⑤ㄱ: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갑시다. 這個周末我們一起玩去吧。 ㄴ: 좋습니다.好啊。 ⑥ㄱ: 저녁 먹으러 안 갈래요?

		不去吃晚飯嗎？ ㄴ: 좋아요. 나도 지금 배가 고파요. 去，我現在也餓了。 ⑦ ㄱ: 요즘 뭘 해요? 最近在干什么？ ㄴ: 수영 배우러 다녀요. 在學游泳。
『新速成韓國語』	‘-(으)러’接在他動詞詞干后，表示‘來’，‘去’一類帶有移動性的動作所要達到的目的或意圖。因此，它后面一般多接‘가다(去)’，‘나가다(出去)’，‘오다(來)’，‘나오다(出來)’，‘다니다(往來)’，‘들어가다(進去)’，‘들어오다(進來)’，‘올라가다(上去)’等趨向動詞。開音節和帶收音‘ㄹ’的音節后接‘-러’，閉音節后接‘-(으)러’。	① 저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我去食堂吃飯。 (我爲吃飯去食堂。) ② 저는 노트를 사러 가게에 가요. 我要去小商店買筆記本。 (我以買筆記本爲目的去小商店。) ③ 한국어를 배우러 가요. (我) 去學韓國語。 (以學韓國語爲目的而去。) ④ 친구가 공원에 놀러 갑니다. 朋友去公園玩。 (朋友以玩爲目的去公園。)

<표 17> 교재별 ‘-(으)러’의 문법 설명과 예문

다음으로 ‘-(으)려고’ 연결어미는 모두 1권 초급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 형태는 ‘-(으)려고’와 ‘-(으)려고 하다’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와 『新速成韓國語』 교재에서 연결어미의 기본형은 ‘-(으)려고’를 제시하고 있고, ‘-(으)려고 하다’는 관용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標準韓國語』 교재에서는 ‘-(으)려고’의 형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으)려고 하다’만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 1』	『標準韓國語1』	『新速成韓國語』
제시 단위	제16과 시간과 날씨	제29과 근황	제31과 서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제시 형태	‘-려고/-으려고’	‘-(으)려고 하다’	‘-(으)려고’ 및 ‘-(으)려고 하다’

<표 18> 교재별 ‘-(으)려고’의 제시 단원과 형태

한국어의 ‘목적’ 연결어미 ‘-(으)려고’는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세 교재 모두 화자의 의도나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세 교재 모두 제한적으로 ‘-(으)려고’ 뒤에 ‘하다’를 붙여 쓰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으)려고’ 뒤에 다양한 동사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문 부분은 세 교재에서 대부분 ‘-(으)려고 하다’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標準韓國語』 교재는 문법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는 반면에 예문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문법 설명에서 ‘-(으)려고’ 뒤에 보조동사 ‘하다’, ‘생각하다’, ‘계획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문에서는 충분히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문법 설명	예문
『韓國語1』	連結語尾：‘-려고/-으려고’ ‘-려고/-으려고’接在動詞詞干后，表示意圖，相當于漢語的‘想要’，‘要’，‘打算’，‘-려고’接在元音或韻尾‘ㄹ’后，‘-으려고’接在韻尾(韻尾ㄹ除外)后。‘-려고/-으려고’的后面常接‘하다’。	①친구와 같이 베이징 시내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想和朋友一起在北京市內觀光。 ②여름은 피서지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想在避暑地度過夏天。 ③한국 식당에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想在韓國食堂吃午飯。 ④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我想在電影院看電影。
	※‘-려고/-으려고 하다’這一慣用型有時縮略爲‘-려하다’，‘-으려 하다’，‘-려하다’，‘-으려 하다’的語法	①저는 학교에 가려 합니다. 我想去學校。 ②내일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明天想離開這個地方。

	意義与‘려고/-으려고 하다’相同。	③저는 칼을 갈려 합니다. 我想磨刀。
『標準韓國語1』	用于動詞詞干后，表示主語的意圖或計劃。	①ㄱ: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今天晚上干什么? ㄴ:친구들과 극장에 가려고 해요. 想和朋友們一起去電影院。 ②ㄱ:왜 전화를 안 했어요? 爲什麼沒打電話? ㄴ: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전이 없었어요. 想打電話，可是沒有硬幣。 ③ㄱ:오늘저녁 회식에 갈 겁니까? 今天晚上會餐你去嗎? ㄴ:바빠서 안 가려고 해요. 挺忙，不想去啦。 ④ㄱ:몇 시에 식사할 겁니까? 几点吃飯? ㄴ:난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조금 일찍 먹으려고 해요. 我今天早晨沒吃飯，想稍微早點吃。 ⑤ㄱ:왜 연락을 안 했어요? 爲什麼不和我聯系? ㄴ:미안해요.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빴어요. 對不起，想和你聯系來着，可是我太忙了。 ⑥ㄱ:왕룡 씨하고 같이 중국에 갈 겁니까? 和王龍一起去中國嗎? ㄴ:아니오. 홍단 씨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不，想和洪丹一起去。
『新速成韓國語』	‘-(으)려고’接在動詞詞干后，表示前句是后句的目的	①영희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가요.

	或意圖。相當于漢語的‘以～爲目的’，‘爲了’，‘想’。可用于不同人稱的疑問句和陳述句。 在‘-(으)려고’后常接補助動詞‘하다’，‘생각하다’，‘계획하다’等。以‘-(으)려고 하다’格式出現時，‘-(으)려고 하다’表示心里有某種動作的意圖或打算，相當于漢語的‘打算’，‘計劃’，‘想’，‘想要’，‘要’。它可用于不同人稱的疑問句和陳述句。	英姬打算去書店買書。 (以買書爲目的去書店。) ②영희는 뭘 하려고 교실에 가요? 英姬去教師干什么? ①영희는 한국어사전과 소설책을 사려고 생각해요. 英姬想買韓國語詞典和小說。 ②영희는 동생에게 줄 서울지도도 한 장 사려고 합니다. 英姬還想買給弟弟的一張首爾地圖。 ③영희 씨, 은행에 가려고 해요? 英姬, 你要去銀行嗎?
--	--	---

<표 19> 교재별 ‘-(으)려고’의 문법 설명과 예문

마지막으로 ‘배경’ 연결어미 ‘-는데/-(으)는데’ 는 <표 20>과 같이 각 교재마다 서로 다른 등급에서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와 『新速成韓國語』 교재는 초급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標準韓國語』에서는 2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1』	『標準韓國語2』	『新速成韓國語』
제시 단위	제15과 영철 씨의 가족사진입니까?	제5과 사과하기	제24 날씨
제시 형태	‘-는데/-는데/-는데’	‘-는데’	‘-(으)는데/-는데’

<표 20> 교재별 ‘-는데/-(으)는데’의 제시 단위와 형태

문법 설명은 모두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문장은 뒷문장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뒤 문장은 전환관계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韓國語』교재는 문법 설명에서 ‘-(으)는데/-는데’는 배경설명, 상황제시, 약한 의미전환의 기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예문은 ‘전환’의 의미 만 다루고 있다. ‘-(으)는데/-는데’는 중국어 문법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기능에 따라

예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법 설명	예문
『韓國語1』	‘-ㄴ 데/-는데/-은데’의基本作用是爲了引起下文而叙述用一般的环境，隨着上下文的變化，或起一种提示作用，或起一种輕微的轉折作用。動詞及없다的語干和先語末語尾‘-았-/-었-/-였-/-겠-’，‘-시-/-으시-’之后用‘-는데’；沒有韻尾的形容詞語干，以韻尾‘ㄷ’結尾的形容詞語干后用‘-ㄴ 데’；有韻尾(韻尾‘ㄷ’除外)的形容詞語干后用‘-은데’。	①얼굴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는데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長得很像媽媽，但性格去不大一樣。 ②밥은 있는데 반찬은 없습니다. 有飯，但沒菜。 ③어머님께서는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안 계십니다. 母親在，但父親不在。 ④그 사람은 떡은 좋아하는데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他愛吃糕，不愛吃米飯。 ⑤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錢多，但沒有時間。 ⑥부모님은 연세가 많은데 모두 건강하십니다. 父母雖年紀大，但都很健康。 ⑦동생은 키가 큰데 힘이 없습니다. 弟弟个子雖高，但沒有勁兒。 ⑧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불니다. 天气雖暖，却有風。 ⑨얼굴은 예쁜데 키가 좀 작습니다. 長得雖然漂亮，个子却有点矮。 ⑩얼굴은 흰데 곱지 않습니다. 臉雖長得白，却不漂亮。
『標準韓國語1』	連接詞尾，用于動詞詞干后，連接內容相反的兩個句子，爲下文提示一般的环境。有‘可是，但是’之意。	①ㄱ:김치 맛이 어때요? 泡菜的味道如何? ㄴ: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요. 很好吃，但太辣了。 ②ㄱ:문수 씨 형제는 다 키가 큼

		니까? 文洙, 你兄弟身材都高嗎? ㄴ:아닙니다. 다 작은데 나만 큼니다. 不, 都很矮, 就我高。 ③ㄱ:중국 여행이 어땠어요? 中國之旅怎麼樣? ㄴ:재미는 있었는데 음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很有意思, 但飲食方面不適應。 ④ㄱ: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下雨了, 可是沒有雨傘。 ㄴ:이 우산을 같이 씁시다. 一起用這把雨傘吧。 ⑤ㄱ:오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 머리 어때요? 今天去美容院剪了頭髮, 這發型如何? ㄴ:예뻐요. 很漂亮。 ⑥ㄱ: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좀 작아요. 在百貨公司買了衣服, 有点小。 ㄴ:그럼, 큰 옷으로 바꾸세요. 那麼, 換件大点的吧。
『新速成韓國語』	‘可是, 但是’ ‘-(으)ㄴ 데/-는데’是表示提示, 說明的連接詞尾。在句子中起提示和輕微轉折的作用, 爲下句內容提示出環境, 條件, 狀態, 下句有事補充前句的內容或說明問題, 有時進一步陳述新出現的情況; (可以	①(지금은)겨울인데 그렇게 춥지 않네요. 現在是冬天, 却不那麼冷啊。 -表示轉折 ②이분은 한국 유학생인데 이름은 정은희예요. 這位是韓國留學生, 名字叫鄭恩姬。

	用漢語的‘這時候，時，這時’來翻譯。)有時前句表示肯定或願意，后句却轉折或否定。本課出現的‘-ㄴ 데’接在<u>體詞的謂詞形</u>后表示轉折。 ‘-는데’接在<u>動詞詞干</u>，‘있다’‘없다’詞干，<u>時制詞尾</u>‘-겠-’，‘-았(었/였)-’后，‘-(으)ㄴ 데’接在形容詞<u>詞干</u>后，‘-는데’接在<u>體詞的謂詞形</u>后。	-表示提示和補充說明 ③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正吃飯（時）來了電話。 -表示說明 ④장미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어요. 玫瑰花好看，但有刺。 -表示轉折
--	---	--

<표 21> 교재별 ‘-(으)ㄴ 데/-는데’의 문법 설명과 예문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 분석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문법은 학습자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적 요소이고,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좌우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이다.

이에 본고는 문법적 요소 중 두 언어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원인’ 연결어미, ‘목적’ 연결어미와 ‘배경’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표 22>와 같이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설명 방식
②배열 순서
③예문 제시
④연습 영역

<표 22> 교재 분석 항목

‘설명 방식’ 항목은 한국어의 문법을 중국어로 적절하게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문법을 설명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문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배열 순서’ 항목은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 난이도,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 형태의 연결어미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닐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예문 제시’ 항목은 예문을 암기 위주의 서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연습 영역’ 항목

목은 일상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제를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3.1. 설명 방식의 문제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세 교재에서 연결어미의 설명 방식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문법 설명에 사용하는 용어의 측면,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측면, 문법 설명의 정도와 문법적 제약 현상의 측면에서 교재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첫째, 중국 내 한국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한다. 그런데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나 용어들은 한국어의 메타언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홍윤기(2006)에서도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문법 용어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문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韓國語1』(2005:117)에서 ‘-아서/-어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用言語幹(용언어간), 敍述格助詞(서술격조사), 先語末語尾(선어말어미)란 한국어 문법의 메타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新速成韓國語』(2006:157)에서도 서술어어간(謂語語干), 體詞(체언), 詞性(단어의 성격) 등 용어를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어간과 체언은 중국어 문법에 없는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각 교재마다 문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연결어미를 ‘連接詞尾’로 표기하는 교재가 있고 ‘連結語尾’로 표기하는 교재도 있다. 이런 표기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여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

교재	『韓國語』	『標準韓國語』	『新速成韓國語』
문법	用言語幹	連接詞尾	詞干
용어	용언어간	연결어미	어간

	<u>敘述格助詞</u> <u>서술격조사</u> <u>先語末語尾</u> <u>선어말어미</u> <u>連結語尾</u> <u>연결어미</u> <u>詞干</u> <u>어간</u> 元音 모음 韻尾 받침 慣用型 관용형	<u>詞干</u> <u>어간</u> <u>體詞</u> <u>체언</u> 開音節 받침 없는 앞 음절 閉音節 받침 있는 앞 음절	<u>體詞</u> <u>체언</u> 詞性 단어의 성격 謂詞詞干 용언어간 <u>體詞的謂詞形</u> <u>체언의 용언형</u> 接續副詞 연결부사 開音節 받침 없는 앞 음절 閉音節 받침 있는 앞 음절 收音 받침 <u>連接詞尾</u> <u>연결어미</u>
--	--	--	---

<표 23> 교재에서 사용한 문법 용어

둘째, 교재에서 연결어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아서/-어서’는 원인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순서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형태는 같더라도 의미가 다양할 때 의미를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형태를 가진 연결어미의 다양한 의미를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습자가 이를 소화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서/-어서’는 ‘순서’와 ‘원인’ 두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동시에 설명하게 되면 학습자의 문법 이해와 사용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법 설명	用于用言語干或敘述格助詞‘-이다’的語干，先于末語尾‘-시-/-으시-’之后， <u>表示原因，方式或時間的先后關係。</u> 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ㅏ,ㅑ’時用‘-아서’；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ㅓ,ㅕ’以外的其他元音時用‘-어서’；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여서’；叙
-------	---

	述格助詞‘-이다’的語干后用‘-어서’。除在敘述格助詞后邊使用的情況以外，‘-아서/-어서/-여서’可縮略爲‘-아/-어/-여’，但其意義相同。
예문	①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原因-이유) 因爲這個太貴了，沒法兒買。 ②이 약은 세 번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方式-방식) 這藥應該分三次吃。 ③일이 많아 못 갔습니다. (原因-이유) 事情很多，所以沒能去。 ④상하이에 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先后-순차) 去上海見了朋友。 ⑤오늘은 일요일어서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原因-이유) 因爲今天是星期天，所以百貨商店里人很多。

<표 24> 『韓國語 1』의 ‘-아서/-어서’ 문법 설명과 예문

『新速成韓國語』(2006:157)에서 ‘-아(어/여)’는 앞뒤 서술어 어간 뒤에 붙어서 앞절은 뒷절의 상황, 즉 뒷절에서 나온 행동과 상태 아니면 서술어의 체언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형성되었는지를 제시한다. 앞뒷절에 쓰이는 단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미도 다르다. 즉 정태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인, 이유, 방식, 방법, 수단, 근거, 목적’ 등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在兩個分句中, ‘-아(어/여)’接在前后的謂詞詞干后表示前句是后句的狀況, 即表明后面的動作和狀態或謂語的體詞是在什麼狀況下發生和形成的。由于上下文所使用的詞性不同, 其意思也不同, 即有時表示情態, 有時表示原因, 理由, 方式, 方法, 手段, 根据, 目的等。).

위에 제시한 문법 설명은 매우 형식적이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초급 학습자에게 학술적인 방식으로 문법 현상을 설명하면 이해가 아닌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한 연결어미의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제시하면 학습하거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문법을 설명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법 현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

요하다.

3.2. 배열 순서의 문제

한 권의 교재를 구성할 때 문법의 배열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문법은 먼저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문법은 나중에 가르쳐도 되는지 또한 한 형태가 다양한 기능을 가질 때 어느 기능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고려하여 연결어미를 배열해야 한다. 그런데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재마다 연결어미를 제시한 순서가 다르게 나타난다.

문법 교재	‘-아서/어서’	‘-(으)니까’	‘-(으)러’	‘-(으)려고’	‘-는데/- (으)ㄴ데’
『韓國語』	제17과	제21과	제18과	제16과	제 15 과
『標準韓國語1』	제23과		제20과	제29과	
『標準韓國語2』		제2과			제5과
『新速成韓國語』	제24과	제43과	제23과	제31과	제24과

<표 25> 연결어미의 제시 순서

둘째,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이 같은 연결어미의 배열 순서를 고려하고, 같은 기능은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세 교재 모두 ‘이유/원인’ 연결어미 ‘-아서/어서’와 ‘-(으)니까’는 ‘-아서/어서’를 먼저 제시한다. 그러나 ‘목적’ 연결어미는 『標準韓國語』와 『新速成韓國語』에서는 ‘-(으)러’를 먼저 제시하고 있지만 『韓國語』 교재에서 ‘-(으)려고’부터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韓國語』 교재에서 ‘-아서/어서’와 ‘-(으)니까’, ‘-(으)러’와 ‘-(으)려고’를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新速成韓國語』에서는 ‘-아서/어서’와 ‘-(으)니까’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셋째,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연결어미의 배열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아서/어서’를 예로 들면 『韓國語』 교재는 두 기능을 같이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교재는 서로 다른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법 교재	‘-아서/어서’ (이유)	‘-아서/어서’ (순차)
『韓國語』	제17과	

『標準韓國語』	제23과	제29과
『新速成韓國語』	제24과	제25과

<표 26> 교재별 ‘-아서/어서’의 제시 순서

3.3. 예문 제시의 문제

예문은 문법을 설명한 후에 학습자가 문법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에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예문을 통해 문법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문법적 요소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의 예문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재의 예문을 살펴보면 『標準韓國語』에서는 대화문의 형태로 예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교재는 서술문 형태로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은 예문이 많다.

예를 들면 『新速成韓國語』의 ‘-아서/어서’ 연결어미에 대한 예문에서 ‘여기는 해양성 기후여서 겨울에도 기온이 10도 정도예요.’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교재 ‘-(으)니까’ 연결어미에 대한 예문에서 ‘그 분은 이름난 의사이니까 의술이 높을 거예요.’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예문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되며 실용성이 떨어진다.

예문은 문법의 설명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韓國語』 교재에서 ‘배경’ 연결어미 ‘-는데/-(으)는데’의 문법 설명 후에 제시된 예문은 ‘배경’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다. 설명과 일치하는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4. 연습 영역의 문제

연습 부분은 세 교재 모두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 단계는 문법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된 문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교재는 ‘문장 만들기, 빈칸 채우기’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암기 위주의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 영역, 읽기와 쓰기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문법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연습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연결어미로 두 문장 연결하기, 연결어미로 문장 완성하기, 빈칸 채우기’ 같은 과제는 학습자가 문법의 형태만 반복적으로 익히게 만들고,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트리기 쉽다. 그러므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연습 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육에서 문법의 형태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서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장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구성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는 중국어의 연사와 가장 많은 문법적 차이를 보이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문과 활동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4.1. 연결어미의 개선 방안

3장에서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의 제시 방식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4.1.1. 설명 방식 개선

연결어미의 설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모색할 수 있다. 문법 설명에 사용하는 용어의 측면,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측면, 문법 설명의 정도와 문법적 제약 현상의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중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를 사용하여 제 2외국어를 학습할 때 더욱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언어 학습 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에게 중국어로 문법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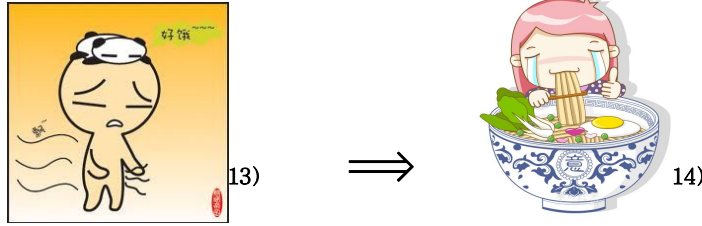
또한 문법 설명에 쓰이는 용어는 한국어 문법의 메타언어를 사용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인 학습자는 연결어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차원에서 학습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用言語干, 叙述格助詞, 先于末語尾’처럼 문법 용어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보다 중국어의 문법 체계와 비교하면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만약 ‘連結語尾’와 같이 한국어의 문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 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連結語尾’是根据不同的意義而連接兩個分句的詞語，相當于漢語中的‘連詞’（但是，爲了等）。一般接在前句結尾的名詞，動詞，形容詞的后面（漢語是接在后句的開頭）。而且根据所連接的詞語的形態差異（有无韻尾或陰性詞，陽性詞）‘連結語尾’也在形態上有所變化。這兩点与漢語十分不同。

다음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를 모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동일한 의미의 용어이지만 각각 표현이 다르게 제시되면 학습자는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용어의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둘째, 문법을 설명할 때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 문법 현상을 설명할 때 문법 형태와 설명을 텍스트로 먼저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예문-문법’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학습자가 실생활의 경험이나 스키마를 떠올려 빠르게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세 교재는 모두 텍스트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미지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휘시킬 수 있고, 문법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와 기능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둘 수 있으므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어요.
(因爲)肚子餓了, 所以吃了碗拉面(方便面)。

‘-아서/어서’是表示原因, 理由的語法, 相當于漢語的‘因爲’,
用于連接兩個句子, 接在前句表示理由的動詞, 形容詞或名詞的後面。

셋째, 문법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문법적인 제약 현상은 부록에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중국 내 한국어 교재는 문법 설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대부분 문법과 단어만 제시해 놓고 있다. 문법 설명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한 단원에서는 하나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만 중점적으로 다루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 단원에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습자가 연결어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어미를 제시할 때 이전에 제시한 연결어미와 형태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다시 제시하여 비교 설명해 주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문법을 설명할 때 연결어미의 문법적인 제약 현상을 제시하지 않고, 부록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좋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학습자가 형태적·의미적 오류를 많이 일으킨다. 이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지만 본문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학습자가 기본 의미조차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연결어미의 제약 현상을 별도로 부록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sumyee88.blogspot.com

14) <http://share.zcool.com.cn/thread-51039-1-4.html>

※ 부록

語法 -아서/어서的使用注意事項：

第一：不可以用在表示過去和未來的時態后面。

例如：선물을 사왔어서 고마워요. ☐

선물을 사갠어서 고마워요. ☐

선물을 사와서 고마워요. ☒

第二：前句和后句的主語可以一致，也可以不一致。

例如：동생이 아파서 내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

꽃이 피어서 예뻐요. ☒

第三：不可以用于祈使句。

例如：비가 많이 와서 나가지 마세요. ☐

배가 고파서 밥을 먹자. ☐

위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교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한국어 교재 『韓國語1』

교재 개선 방안

-(으)러:

문법 설명:

連結語尾-러/-으러用于動詞詞干后，表示來，去等具有移動性的動作所要達到的目的，它后面一般与가다(去)，오다(來)，다니다(往來)，나가다(出去)，들어오다(進來)，올라가다(上去)等帶有地点轉移含義的詞連用。-러用于元音或韻尾ㄹ后，-으러用于韻尾(韻尾ㄹ除外)后。

예문:

例:

①병원에는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來医院看病的人很多。

-(으)러:

이미지로 제시:



15) ⇒



16)

공부하러 학교에 가요.

(爲了)學習去學校。= 去學校學習。

문법 설명:

‘-(으)러’是表示目的的語法，近似于漢語的‘爲了’。

用于連接兩個動作，前句是后句的目的，用于動詞后面。

※在漢語里，一句話里的兩個動詞相連，即使帶有目的性，也不用添加特別的詞匯，但在韓語里，帶有目的性的兩個動詞要用-(으)러來連接。

15) <http://www.nipic.com/show/3/15/09e4e7c7effa8700.html>

16) <http://www.3lian.com/down/pic/14/1403/32724.html>

- ②휴식 시간에는 공원에 놀러 갑니다.
休息時去公園玩。
- ③일이 있어서 놀러 갈 수 없습니다.
有事兒，所以不能去玩。
- ④입원한 친구를 병문안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去醫院探望住院的朋友。
- ⑤그 분은 선생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습니다.
那個人來這裏見老師。

4.1.2. 배열 순서 개선

교재를 구성할 때 문법의 배열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세 교재는 문법의 배열 순서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습자가 연결어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면, 최지희(2010:37-38)에서는 연결어미의 배열 순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단순한 형태부터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순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사용빈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해야 한다. 셋째,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해야 한다. 넷째, 통사적 제약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의 순서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부터 주변적인 의미 순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참고하여 본고는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 중 초급 수준의 형태들을 중심으로(백봉자, 2003),¹⁷⁾ 배열 순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유/원인’ 연결어미 ‘-아서/어서’, ‘-(으)니까’의 제시 순서와 ‘목적’ 연결어미 ‘-려고’와 ‘-러’의 제시 순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아서/어서’는 ‘-(으)니까’보다 서술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서/어서’부

17) 백봉자(2003)에서는 표준어를 빈도수,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초급 수준은 ‘***’, 중급 수준은 ‘**’, 고급 수준은 ‘*’으로 표시하였다. 진선(2002:15)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난이도가 낮은 연결어미의 목록을 ‘-면’, ‘-고’, ‘-아서/어서’(원인), ‘-는데/은데/는데’, ‘-아서/어서(계기)’, ‘-려고’, ‘-지만’, ‘-러’, ‘-니까’, ‘-면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에 의한 연결어미 학습 순서는 ‘-고’, ‘-아서/어서’, ‘-면’, ‘-면서’, ‘는데/는데’, ‘-지만’, ‘-려고’, ‘-니까’, ‘-러’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터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정은경(2009:45)에 따르면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토대로 ‘-아서’와 ‘-니까’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어서’가 ‘-니까’보다 사용 빈도와 오류 횟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서’를 ‘-니까’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목적’ 연결어미 ‘-려고’와 ‘-러’는 형태적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러’는 ‘-(으)러 가다/오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목적’의 기능보다 중국어에서 ‘去+동사/來+동사(가서~하다/와서~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러’의 활용이 더 높게 평가된다. 통사적 제약의 관점에서 ‘-려고’의 제약이 ‘-러’보다 많아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으)러’는 ‘-(으)려고’보다 교재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는데/(으)ㄴ데’ 연결어미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연사는 없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두 대상의 대조 관계를 중심으로 ‘-는데/(으)ㄴ데’ 연결어미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중국어 문법에 없는 ‘배경’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학습자들이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사용빈도가 높더라도 모국어의 간섭을 고려하여 다섯 가지 연결어미 중에서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의 모든 기준을 고려하여 본고는 다섯 가지 연결어미를 ‘-아서/어서’ > ‘-(으)러’ > ‘-(으)니까’ > ‘-(으)려고’ > ‘-는데/(으)ㄴ데’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4.1.3. 예문 제시 개선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두기 때문에 대화문의 형태를 서술문보다 대화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문적인 어휘나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재의 단원에서 학습한 연결어미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적·의미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2~3가지의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존 한국어 교재 『韓國語1』

例:

- ①얼굴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는데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長得很像媽媽，但性格去不大一樣。
- ②밥은 있는데 반찬은 없습니다.
有飯，但沒菜。
- ③어머님께서는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안계십니다.
母親在，但父親不在。
- ④그 사람은 떡은 좋아하는데 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他愛吃糕，不愛吃米飯。
- ⑤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錢多，但沒有時間。
- ⑥부모님은 연세가 많은데 모두 건강하십니다.
父母雖年紀大，但都很健康。
- ⑦동생은 키가 큰데 힘이 없습니다.
弟弟个子雖高，但沒有勁兒。
- ⑧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불니다.
天氣雖暖，却有風。
- ⑨얼굴은 예쁜데 키가 좀 작습니다.
長得雖然漂亮，个子却有点矮。
- ⑩얼굴은 흰데 곱지 않습니다.
臉雖長得白，却不漂亮。

예문 제시의 개선 방안

例如・예문:

- ①다은: 점심을 같이 먹어요.
(一起吃午飯吧。)
철수: 내가 방금 먹었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我剛才吃了，你還沒吃嗎?)
- ②한나: 주말에 남자친구와 어디에 가는 게 좋아요?
(周末跟男朋友去哪兒玩儿好呢?)
수지: 요즘 단풍이 예쁜데 한번 남산에 놀러 가요.
(最近楓葉很漂亮，去南山看看吧。)
- ③강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你是哪國人?)
민재: 중국인데 보라라고 합니다.
(我是中國人，名字叫보라。)

4.1.4. 연습 영역 개선

한국어 교재의 연습 영역은 문법을 연습하는 영역과 실제 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교재는 연결어미의 형태적 변화와 의미에 중점을 두어 연습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사적·의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상의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연습 문제 영역에 활동 영역을 추가하여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활동 영역은 듣기 자료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가상의 실제 상황을 마련하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나 함께 학습하는 친구와 함께 가상의 상황에서 대화를 나눠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의 네 영역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4.2. ‘-(으)니까’의 교육 방안

앞 절에서 교재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네 영역을 토대로 ‘이유/원인’ 연결어미 ‘-(으)니까’의 교육 방안을 구성해 보았다. ‘-(으)니까’의 교육 방안을 설계한 후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교육 방안을 보완·수정하여 다른 연결어미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今日語法・오늘의 문법

‘-(으)니까’

1. 參考圖畫，想像一下語法的意義。

(그림을 보면서 문법의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18) ⇒



19)

요즘 단풍이 너무 예쁘니까 같이 보러 갈까요?
(最近楓叶很漂亮, 要不要一起去賞楓叶?)

(문법 설명) ‘-(으)니까’是表示原因, 理由的語法, 相当于漢語的‘因為’, 用于連接兩個句子, 接在前句表示理由的動詞, 形容詞或名詞的后面。

這個語法体现說話人的想法与經驗, 更明确地強調出原因。

特征是后句一般以祈使句結尾。

例如(예문): 1. 수민: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만날까요?

(今天事情很多, 下次見好嗎?)

정호: 알았어요. 다음에 만나자.

(知道了。下次見吧。)

2. 재원: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마시지 마.

(昨天喝了很多酒, 今天就別喝了。)

동민: 나는 더 마셔도 괜찮아.

(我再喝点儿也沒問題的。)

3. 예린: 둘이 아주 친해 보여요.

(你們看起來關係很好啊。)

연수: 오래전부터 친구니까 친하죠.

(我們是老朋友了, 當然關係好了。)

※‘-(으)니까’和‘-아서/어서’的區別:

(‘-(으)니까’와 ‘-아서/어서’의 비교설명)

1. ‘-아서/어서’表示一般事物的現象和變化而引起的原因。

‘-(으)니까’則表示說話人的想法和經驗而引起的原因。

커피가 뜨거워서 입을 뗐어요. (由于) 咖啡太燙, 所以把嘴給燙了。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咖啡太燙了, 喝的時候請小心点儿。

2. ‘-아서/어서’前不可以使用過去時。

‘-(으)니까’前則可以使用。

이제 공부를 다 했어서 가서 쉬자. ☐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가서 쉬자. ☒

3. ‘-아서/어서’不可以用于祈使句。

‘-(으)니까’前則可以使用。

문제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4. ‘-아서/어서’的后句可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으)니까’的后句不可加這類詞。

늦으니까 미안해요. ☐

늦어서 미안해요. ☒

動詞, 形容詞, 名詞 + ‘-(으)니까’ 的形態變化:

(동사, 형용사, 명사 + ‘-(으)니까’의 형태 변화):

无韻尾的話 + 니까 :

지각하다: 지각하 + 니까 = 지각하니까

던지다: 던지 + 니까 = 던지니까

바보: 바보 + 니까 = 바보니까

有韻尾的話 + -(으)니까 :

받다: 받 + -(으)니까 = 받으니까

닫다: 닫 + -(으)니까 = 닫으니까

*걷다: 걷 + -(으)니까 = 걸으니까

열다: 열 + -(으)니까 = 여니까

만들다: 만들 + -(으)니까 = 만드니까

※ 以韻尾‘ㅁ’結尾的單詞 + -(으)니까 = 우니까

(받침‘ㅁ’의 불규칙 변화)

- ㉔덥다: 덥 + -(으)니까 = 더우니까
 ㉕춥다: 춥 + -(으)니까 = 추우니까
 ㉖지겹다: 지겹 + -(으)니까 = 지겨우니까

有些以韻尾'ㅂ'結尾的單詞是不變形的：

- *씹다: 씹 + -(으)니까 = 씹으니까
 *잡다: 잡 + -(으)니까 = 잡으니까

練習・연습

1. 選詞填空(빈칸을 채우세요)：

(밥이)되다. 힘들다. 춥다. 피곤하다. 잡다.

- 가: 밥은 다 _____ 먹어요.
 나: 밖에 _____ 많이 입고 나가요.
 다: 내 손을 갑자기 _____ 당황했어요.
 라: 일이 너무 _____ 그만두고 싶어요.
 마: _____ 일찍 집에 갑시다.

2. 選擇正確的詞語形態變化(알맞은 문법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 다은: 왜 그 친구한테만 잘해줘요?
 민혜: (여자친구니까/여자친구여니까) 잘해주죠.
- 승환: 오늘 많이 늦었어요.
 영희: 택시를 못 (잡았니까/잡았으니까) 뛰어 왔어요.
- 형준: 방이 아주 시원해요.
 동현: 창문 (여니까/열으니까) 시원해요.
- 동호: 요즘은 살이 빠졌어요?
 미화: 차를 타지 않고 자주 (걸으니까/걷으니까) 살이 빠졌어요.
- 수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자.
 민재: 밖에 (덥으니까/더우니까) 집에서 DVD를 보자.

實景活動 · 활동

1. 看圖，并用‘-(으)니까’造句与老師對話。

(그림을 보고, ‘-(으)니까’로 교사와의 대화를 만들어보십시오.)



20)

교사: 수이씨, 내가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參考詞匯 · 참고어휘 : 있다, 같이, 짐)



21)

교사: 방원씨, 어디예요? 왜 아직도 안 와요?

(參考詞匯 · 참고어휘 : 버스를 타다, 조금, 기다리다)

2. 下列單詞，用‘-(으)니까’的語法，自己或者与旁邊的人一起編寫并且練習一个~两个簡單的對話。

(‘-(으)니까’로 혼자 혹은 주변사람과 함께 간단한 대화를 만들고 연습하십시오.)

출다 - 내일 만나다.
시간이 많다 - 천천히 하다.
너무 배고프다 - 기다릴 수 없다.
늦었다 - 빨리 갑시다.
다 먹었다 - 잠깐 쉬다.

3. 閱讀下面的短文，回答問題。

(글을 읽고 질문을 대답해 보십시오.)



22)

한국어로 부탁하기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존칭(尊稱)이 있고 존댓말(敬語)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로 ‘請’도 있지만 서로 대화할 때 자주 쓰이는 편이 아니다. 말을 할 때 억양만 부드럽게 하면 실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부탁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 ‘-세요’를 많이 사용하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我要_____’(내가 원하는 것은____)같은 말을 많이 쓰죠? 한국어로는 ‘_____주세요’(請給我_____)이다. 여러분도 한국에 갈 때나 한국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세요’를 많이 사용하고 중국인의 예의를 보여주세요.

用韓語回答下列問題。

(한국어로 아래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1. 한국어의 ‘무엇’이 매우 중요해요?

2. 중국어의 ‘請’은 한국어로 뭐예요?

3. ‘請給我’는 한국어로 뭐예요?

根据下列理由，向別人提出一些帮助和請求。

(아래 제시한 이유로 남에게 부탁해 보세요.)

1. 목마르다 - 물을 주다.

2. 이 책을 안 읽었다 - 빌려주다.

3. 등이 아프다 - 마사지를 해준다.

4. 책들이 무겁다 - 들어주다.

5. 방이 어둡다 - 불을 켜주다.

附錄 · 부록:

語法 ‘-(으)니까’의使用注意事項：

(문법 ‘-(으)니까’의 사용 주의사항:)

第一：可以接在表示過去的時態后面。

例如：오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오후에 좀 놀자.

※接在表示將來時態的后面時，用‘-(으)ㄴ 테니까’

例如：내가 바로 전화할 테니까 핸드폰을 끄지 말고 기다려.

第二：經常用于祈使句。

例如：일찍부터 차가 막히니까 좀 빨리 출발합시다.

第三：-(으)니까의后句不可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等詞。

例如：늦었으니까 미안해요. ☒

늦어서 미안해요. ☒

사진을 보내주니까 고마워요. ☒

사진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

제5장 결 론

본고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한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겪게 되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조 분석 가설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제 1언어 체계는 고립어에 속하는 중국어이고, 제 2언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이처럼 두 언어 체계의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인해 문법적 차이가 발생하고,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체계와 다른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중국어 연사와 달리 어간 뒤에 붙어 형태적으로 활용하고, 한 형태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이유/원인, 목적, 배경’ 연결어미는 중국어 연사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법적 요소이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초급 수준에서 제시하는 ‘이유/원인’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아서/어서’, ‘-(으)니까’, ‘목적’ 연결어미의 ‘-(으)러’, ‘-(으)려고’, ‘배경’ 연결어미 ‘-는데/는데’의 설명 방식과 체계를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의 항목은 연결어미의 ‘제시 단위’, ‘제시 형태’, ‘문법 설명’, ‘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 방식’, ‘배열 순서’, ‘예문 제시’, ‘연습 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대로 검토하였고, 각 문제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는 우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교재가 중국어를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와 용어는 한국어 문법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
- 18) <http://www.nipic.com/show/1/63/be9eae081c8d8362.html>
 - 19) http://travel.ce.cn/cjy/200709/24/t20070924_13019351.shtml
 - 20) <http://www.xxjxsj.cn/>
 - 21) <http://www.910club.cn/kjsc/rwsc/23472.html>
 - 22) <http://www.nipic.com/show/4/64/3169659843b6fa4e.html>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재마다 연결어미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문법을 설명할 때 다양한 활용하지 않고,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풀이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법 현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한다.

둘째, 연결어미의 배열 순서는 각 교재마다 서로 차이를 보이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결어미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연결어미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연결어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게 배열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어 문법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 연결어미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와 사용 빈도, 오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아서/어서’ > ‘-(으)러’ > ‘-(으)니까’ > ‘-(으)려고’ > ‘-는데/(으)ㄴ데’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예문은 문법을 설명한 후에 학습자가 문법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분석한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의 설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예문이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이 아니라 제한된 상황 안에서 가능한 내용으로 예문을 구성한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는 예문을 통해 문법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들을 인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의 예문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연습 영역은 학습자가 문법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몇 가지의 연습 유형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습 문제 영역에 활동 영역을 추가하여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활동 영역은 듣기 자료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가상의 실제 상황을 마련하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의 네 영역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으)니까’의 교육 방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연결어미 제시 방식의 문제를 제시한 데서 나아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으)니까’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다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연결어미를 교육 방안 모형에 적용하여 재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설계한 교육 방안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한 후에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明姬·文麗華(2006). 『新速成韓國語』, 民族出版社.
- 李先漢 외(2005). 『韓國語1』, 民族出版社.
- 李先漢 외(2005). 『韓國語2』, 民族出版社.
- 李先漢 외(2005). 『韓國語3』, 民族出版社.
- 李先漢 외(2005). 『韓國語4』, 民族出版社.
- 北京大學 等 共同編寫(2007). 『標準韓國語1』, 北京大學出版社.
- 北京大學 等 共同編寫(2007). 『標準韓國語2』, 北京大學出版社.
- 北京大學 等 共同編寫(2007). 『標準韓國語3』, 北京大學出版社.

2. 연구논저

- 국립국어연구원(2002). 『한국어표준문법(시안)』,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윤전(2006). 「중국어 복문의 관련어구 교수-학습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2008). 「중국의 한국어 교재 비교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4차.
- 남기심·고영근(200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단결(2010).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단결(2010).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선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劉英林(1996). 『漢語水平等級標準与語法等級大綱』, 高等教育出版社.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5).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대범(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유.원인’의 연결표현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두본(2008). 『영어 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 백봉자(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종학. 이미향(2010).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성진선(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대현(2008). 「한국어 초급 교재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교육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희(2008). 「한.중 한국어 교재 비교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나(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양(2009).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천(2009).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오류 분석」,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1998). 「현대 중국어 연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임지숙(2009).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아서/어서’에 대한 오류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아(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효단(2007).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 연구-중국의 대외한어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적위기(2005).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연구: 초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09). 「‘-아서’와 ‘-니까’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춘란(2009).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문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무숙(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연결어미 교육」,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향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주소사(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정(2010). 「중국 내 한국어 초급 교재의 비교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희(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목적 표현 연결어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예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목적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홍윤기(2006).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회.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집』, 연세대학교어학당.

H. Douglas Brown(2007).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
선.

3. 참고 사이트

韓國新網 www.koreaxin.com

韓語韓國 www.mykrkr.com

人人聽力 www.rrtng.com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of The Ending Connectives in Korean Education

-Focusing on Different Textbooks from China-

Son Kyol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t textbooks from China, investigate the construction of those textbooks, the explanation of the ending connectors and then suggest an improved scheme for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in China. This study is focusing on Korean language learners in China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hinese grammar and Korean grammar. That is why the Chinese learners feel a lot of difficulties when they learn Korean language. Most notably the Chinese language learners who grew up influenced by adult learni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grammars. Such as the ending connectives, there is '연사(連詞)' in Chinese grammar. In the beginning we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연사(連詞)' and then contrast it with Korean ending connector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m

specially three of them, ①reason ending connectors ②purpose ending connectors ③background ending connectors. In addition, these three kinds of ending connectors include many forms. In this study I only selected five ending connectors for entry level. They are ‘-아서/어서’ , ‘-니까’ , ‘-러’ , ‘-려고’ , ‘-ㄴ데/는데’ .

Next, through observation of the three textbooks I selected by structure and content and found out the features of teaching. In conclusion, three textbooks are teaching using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Then by the items of analysis examined ‘Present Sections’, ‘Present Form’, ‘Grammar Description’ and ‘Example’ four parts.

In part of ‘Description form’, three problems were found. ①Grammar Term ②Complexity of Description ③Description by only Characters. In part of ‘The Order’, the order in which the ending connectors are taught in those textbooks is different. In the part ‘Form of Example’, they present examples by description instead of interaction. Also the amount of example is too many. In part of ‘Exercise’, there are two problems. ①The exercises give too much importance to Writing and Reading ②The form of exercises are repetitive and similar.

Based on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provide improvements for all problems. For example the grammar terms have to be simple. Especially for Chinese learners. Also grammar description should be better presented, for example using images. The ending connectors have many limitations of use. All the limitations should be presented in an Appendix. The order of the five ending connectors is suggested by ‘-아서/어서’ > ‘-(으)러’ > ‘-(으)니까’ > ‘-(으)려고’ > ‘-는데/(으)ㄴ데’ and the form of example should be presented using an interactive method. The exercises should be constituted in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four parts.

After all of these improvement, we synthesize all ideas then present a simple educational model.

